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4주 】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4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나뭇잎이 떨어지고 고니 소리 높이 나는 입동(立冬) 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험벗은 나뭇가지에 부는 황금바람은, 우리의 후줄근한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어느새 우리는 그런 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반역의 충동을 제거해주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를 눈여겨보며 우리의 조연자가 되어 주십시오. 태산보다 더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두고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수행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21:5-6 ..... 인도자

♠ 교 독 문 ..... 30. 시편139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윤 윤 선생 II. 구성실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 다함께

성경봉독 ..... I. 마7:13-14 ..... 인도자

II. 시8:1-9 ..... 이재구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완전에 가까운 결단 ..... 김재흥 목사

II. 사람이 무엇이기애 .....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 다함께

헌신의 찬송 ..... 372. 나 맡은 본분은 ..... 다함께  
 봉 헌 ..... 다함께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날마다 거짓과 위선과 탐욕의 옷을 벗고, 진실과 정직과 절제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주님께 바치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니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새겨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멘.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햇빛발전소 개소예배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기도 : 박경원 집사

<b>다음 주 예배위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정숙 선생 방문성 장로	인도자 조항범 집사

<b>11월</b>	영접위원	방문성	홍순구	박규석	박해경	안홍숙	박경선
	헌금위원	구성실	이호원	김근중	안길상	최숙화	강순배

## 일용할 말씀

아침마다 우리는 오늘에 대한 걱정이나 당장에 감당해야 할 일의 부담이 아니라, 나를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사50:4) 주님 때문에 잠에서 깨어난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신다. 우리의 귀가 하루 동안 무수히 많은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이신 분의 목소리를 아침 첫 시간에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아침의 고요를 예비하셨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분만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에 앞서 일용할 말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에 앞서 아침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날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침 시간은 기도와 공동 예배를 위한 조용한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그것 외에 하루의 염려와 과제, 그리고 유혹에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록 때로는 기분이 내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서 찬양과 기도를 바라시는 분께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질서를 잡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는 일에 관한 한 ‘형식적’이라는 말은 용납될 수 없다. 무질서한 삶은 우리의 신앙을 손상시키고 파괴한다. 복음의 자유와 훈련 부족은 분명히 구별된다. 과격한 행동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을 망치지 않으면서 충실하게 영적인 수행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從)으로서의 영적 수련 과정을 익혀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용한 기도와 명상을 위한 시간을 정해 놓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실천해 나갈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소명 때문에 (행6:4)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에 오늘 하루를 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

리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설교하고 가르치며 다른 사람들의 짐을 덜어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사역이 공허하고 관례적인 것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 구절을 명상하며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신 속에서 곳곳하게 설 자리를 마련해준다. 그리하여 말씀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너무나 빠른 변화는 피상적인 변화이기가 쉽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언어로 말하는 법을 서서히 배워 나가야 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말을 따라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 그분께 말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기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삶을 맡기면서, 그분 앞에서 생각과 의지를 청결히 한다.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 다음으로, 드넓은 중보기도의 별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점은 원근간의 사람과 사물로 확대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도를 청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는 우리에게 개인적으로든 직업상으로든 배려를 부탁한 모든 사람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힘을 실어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항상 넘치는 확신 속에서 ‘아멘’이 되풀이되어야 한다.

때때로 우리는 이웃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럴 경우 우리는 무엇보다도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야 한다.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매일같이 시편을 빠짐없이 읽으며 기도한다면,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신약과 구약을 적당한 비율로 교차해가며 읽어야 한다. 교회의 찬송가들은 과거와 현재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 줄 것이며, 한 사람의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나님은 아침의 고요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전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과의—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과의—친교를 체험하게 된다.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디트리히 본회퍼, <<시편명상>> 중에서

## ■ 마/음/으/로/위/는/글

### 기쁨 꽃

한번씩

욕심을 버리고/미움을 버리고  
노여움을 버릴 때마다  
그래 그래/고개 끄덕이며  
순한 눈길로  
내 마음에 피어나는/기쁨 꽃, 맑은 꽃

한번씩

좋은 생각하고/좋은 말하고  
좋은 일할 때마다  
그래 그래/환히 웃으며  
고마움의 꽃술 달고  
내 마음 안에 피어나는  
기쁨 꽃, 맑은 꽃

한결같은 정성으로/기쁨 꽃 피워내며  
기쁘게 살아야지  
사랑으로 가꾸어  
이웃에게 나누어줄/열매도 맺어야지  
(이해인)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청파햇빛발전소 개소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 친교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부장회의** :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오후 1시 교사실에서 있습니다.
3. **세례입교신청** : 오는 성탄절에 세례 받거나 입교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내시고 예비교육에 참석하십시오.
4. **보고서** : 각 부와 선교회는 일년 동안의 활동을 A4 한 장 이내로 정리하여 11월 2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혼** : 우리교회의 젊은 커플 이정현 & 김민아 씨가 11월 17일 (토) 오후 5시, 국제전자센터컨벤션 & 웨딩(남부터미널 역 근처) 13층에서 결혼합니다.
6. **신앙실천** :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십시오. 조금만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토요봉사(17일) 장혜숙 박혜경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조해인(생일), 김창원(생일), 임승동(생일) 송동준 김진경(회원, 우석, 채원 생일)

< 새교우 소개 >

2737 오미래 소속: 청년회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